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7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16일(음력 3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10·27법난기념관 건립 불사 '본격화'

조계종, 4월7일 협상대상 발표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 선정
'화엄 세계 체험 여정' 주제로
오는 2028년 기념관 준공 목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0·27법난에 대한 홍보와 교육, 명예회복과 피해자 예우를 위한 공간인 10·27법난기념관이 '화엄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정의 공간'을 주제로 2028년 준공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 결과 ㈜포스코에이앤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4월 7일 밝혔다. 조계종은 설계공모 및 현장설명회 후 3월 27일, 접수된 총 9개 업체의 설계 작품 심사를 진행한바 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 1972억원에 달하는 대형 불사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봉은사 부지에 건립예정인 10.27법난기념관은 연면적 5만6029.09㎡, 건축면적 1만1956.71㎡ 규모다. 지하 4층, 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와 트러스 구조로 공연장, 전시장 및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번 설계공모에서 10·27 법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불교 전통문화 정신을 계승하는 복합 문화 추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불교계의 역사적 의미를 간직하고 치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9개 업체가 제출한 작품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계획의 창의성, 전통사찰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 복합문화시설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계획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1차 및 2차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주범 건국대 교수는 "당선작이 봉은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울의 대표적 도심 속 전통사찰인 봉은사와 자연, 도시가 어우러진 배치로 조화롭게 계획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10·27법난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국가권력의 종교탄압 사건이다. 당시 사찰 6000여 곳이 강제 수색 당했으며 스님을 포함한 불교계 인사 2000여 명이 강제 연행돼 고문과 인권을 유린당했다.

조계종은 피해 스님들과 10·27법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세미나 개최, 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2007년, 이를 국가의 과오로 인정한 바 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27법난기념관은 과거사의 기억과 회복, 불교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복합 문화 추념 공간"이라면서 "전시, 교육, 공연 등을 통해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널리 알리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27법난기념관 조감도.



동국대 학생들, 연등 제작 '삼매경'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동국대 대학생 불자들이 교내 곳곳에 마련된 연등 공방에서 학교 마스코트 '아코등'을 비롯한 연등 제작에 매진 중이다. 사진은 동국대 학생들이 '아코등'을 채색하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신중일 기자

선지식 7인 참여 '담선대법회' 열린다

〈談禪〉

국가의 극심한 혼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법석이 열린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와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성원 스님)는 전국선원수좌회와 함께 4월 14~20일 일주일간 매일 오후 3시(4월 15일만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국난 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談禪)대법회를 봉행한다.

담선대법회는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의 지혜로 국민 대화합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대법석이다. 이번 대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됐다. 지난 시간 힘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로워지기를 기원하며, 우리나라가 더욱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이번 대법회에서는 평소 친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식 스님 7인이 매일 총 7일간 법회를 이끈다. 교재는 〈육조단경〉이다. 〈육조단경〉은 혜능 선사의 설법을 담은 경전으로, 조계종은 혜능 선사의 법호인 조계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4월 14~20일 서울 조계사서
韓불교 대표 선사 법석 펼쳐
국운융창 국민치유 염원 담아

4월 14일 오후 3시 백담사 조실 영진 스님을 시작으로 4월 15일 오전 11시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4월 16일 오후 3시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 4월 17일 오후 3시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4월 18일 오후 3시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4월 19일 오후 3시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4월 20일 오후 3시 해인사 방장 대원 스님 순으로 법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4월 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최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며 마음의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선지식인들의 선의 지혜로 국민들의 미음을 치유하는 법석을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스님들의 뜻을 반영해 담선대법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담선대법회가 간화선의 활기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어른스님들을 찾아 뵙고 취지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대부분 스님들이 간화선의 중요성과 선명상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계셨다"면서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혀 법회가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법향 가득한 대법회가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권했다. 02-768-8600

임은호 기자

'동화사 총림 해제' 논란 조계종 총무원 감사 진행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총림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림 해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온 동화사 집행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4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반면 동화사 재적승 22명은 7일 '팔공상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를 구성하고 "총림 해제는 종단이 실시한 세 차례 실사 결과에 따른 결정"이라며 "집행부는 지금 당장 종회 의결을 수용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은 "종회는 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림 지정을 해제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무원은 4월 14일부터 팔공총림 실태 파악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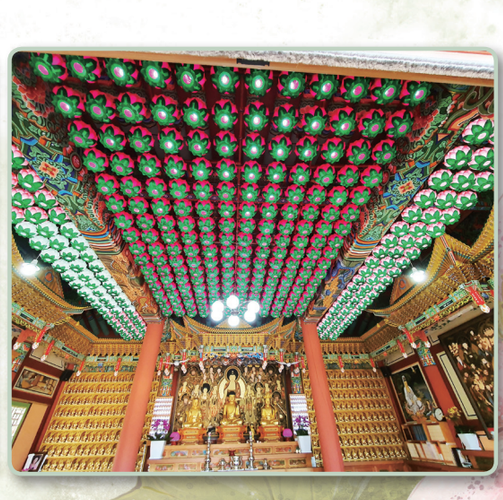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